

광주 온 해외바이어, 고추장·김 ‘K-푸드’ 큰 관심

광주시·무역협회, 수출상담회 성료
미국·일본·태국 등 8개국 기업 참가
수출상담 139건·100만불 수출협약
“해외판로 개척...지역경제에 활력”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가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22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 홀에서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된장·고추장·김 등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수출상담 139건, 100만달러 상당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화장품·미용제품, 식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광주지역 50개 업체가 참여했다.

광주지역 업체들은 태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국·프랑스·멕시코 8개국에서 초청된 해외바이어 18개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사를 대상으로 139건의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가장 높은 반응과 관심을 모은 업종은 ‘K-푸드’였다.

지역 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숙성·발효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기업 담

백원(대표 박민정)은 베트남 유통바이어 텅 닌 인포어트 엑스포어트 제이에스 컴퍼니(Tung Minh Import-Export JS Company)와 50만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전문식품 기업인 김부자푸드(대표 정태식)는 베트남 바

이어 에스지 글로벌 트레이딩(SG Global Trading)과 2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뷰티 분야에서는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 기업인 아리뷰에(대표 김태은)가 프랑스 바이어 케이 뷰티 코스메틱스(K-Beauty Cosmetics)와 30만달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그동안 꾸준히 참여해온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 외에도 월마트, 메이시스 등 현지 대형 유통사에 한국 뷰티·식품 등을 공급 중인 지엘 인터내셔널(GL International), 프랑스의 한국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인 케이 뷰티 코스메틱스(K-Beauty Cosmetics) 등 미주나 유럽국가에서 참여하며 저변이 확대됐다.

또 이번 상담회에 더해 미국 월마트(Walmart)와 샘스클럽(Sam's Club) 등의 1차 유통사인 블루 스카이 리테일(Blue Sky Retail)이 광주 소비재 기업들과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영양보충제, 건강제품 등을 취급하는 그랜트 이 원즈(Grant E One's)가 잭아와 광주의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을 만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마켓 등의 유통채널을 보유한 피티 캐스타라 프리마바르커(PT Kastara Primabarkah)가 광주의 식품기업들을 만났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방산산업 관련 부품·장비 등을 수입해 방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부스테드 헤비 인더스트리즈(Boustead Heavy Industries)가 광주의 기계부품·설비 업체를 만나는 등 다양한 전문 업종 바이어들도 다수 입국해 관심을 모았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특화업종 바이어들을 초청해 내실을 기했다”며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선을 다변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주의 역량있는 케이(K)-브랜드 제품과 해외바이어의 만남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기아, 광주서 한국시리즈 야외응원전 개최

DJ센터서 홈·원정경기 중계

기아는 지난 21일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V12 달성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시리즈 야외응원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아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1, 2, 5차전 홈경기과 대구에서 열리는 3, 4차전 원정경기를 중계할 계획이다.

야외응원전을 통해 기아는 참여한 시민들이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했다.

또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

과 다양한 종류의 푸드트럭을 준비해 참여한 시민들이 더욱 즐겁게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응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더불어 기아는 공장 벽면에 미디어월로 기아 브랜드 영상을 송출해 응원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아의 브랜드 가치와 다양한 전동화기술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한국시리즈 야외 응원전은 기아 타이거즈의 V12를 달성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염원하는 광주시민들의 열정 담긴 응원이 기아 타이거즈에게 승리의 기운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롯데마트, 겨울학기 문화센터 운영

내일부터 회원 모집

롯데마트가 24일부터 전국 문화센터 59개 점에서 겨울학기 문화센터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겨울 학기는 0세 아기부터 80세 시니어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준비해, 다가오는 겨울을 온 가족이 문화센터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점포별 운영 강좌는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점별 모바일 전단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먼저 첫 돌 전 뒤집기와 앉기, 기어다니기를 시작한 영아들이 더욱 다채로운 문화센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한 강좌를 직전 학기 대비 40%가량 추가 개설했다. 대표 강좌로 영아의 오감 발달을 위한 ‘오감 놀이 랄랄라 코알라’, ‘신기한 오감 점프 베베’ 등이 있다.

시니어 특화 강좌도 가을 학기 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필라테스와 중장년층의 신체에 최적화된 요가 수업이 준비돼 있다.

다양한 온라인 일일 특강들도 선보인다. 대표 강좌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총 3개 언어를 각 하루씩 3일에 걸쳐 쉽게 숙달할 수 있는 ‘3일 코스 현지 실용회화 배우기’ 특별 코스가 준비돼 있다.

겨울 학기 강좌는 롯데마트 문화센터 전국 59개점 오프라인 매장 및 롯데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culture.lottemart.com)와 모바일 홈페이지(m.culture.lottemart.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24일부터 11월8일까지 정규 강좌 접수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채널별 쿠폰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 및 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정의선 회장, 모디 인도총리와 면담 “협력 지속”

인도-현대차그룹간 협력방안 논의 “부품 현지화 등 인도내 EV 확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하루 앞두고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위치한 총리관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현대차그룹간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증시 상장(IPO)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서 28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자동차 산업 발전,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등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위치한 총리관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인도-현대차그룹간 다각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통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제조업 육성 정책)’와 ‘발전된 인도 2047’ 비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인도 첸나이 현대차 1·2공장, 아난타푸르 기아공장을 운영하

고 있으며, 푸네지역에 현대차 3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위치한 푸네공장은 현대차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내년 하반기 완공된다. 1단계 17만대 생산규모로 시작해 2028년 총 25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인도에서 EV 모델을 지속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인도기술연구소에서 인도 현지 개발 완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소형차 개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R&D 우수 인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회장은 2015년 모디 총리의 방한, 2016년 및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2018년 인도 MOVE 모빌리티 서밋, 2019년 청와대 오찬 등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양국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전남도, 이달 친환경농산물에 나주 방울토마토 선정

미네랄·라이코펜 등 영양소 풍부

전남도는 나주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청정환경에서 생산하는 ‘방울토마토’를 10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울토마토는 한입에 쏙 들어가 먹기에도 좋지만 비타민C와 미네랄,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실제 나주 동강면 곡천리 송철수

(57)씨는 1ha 규모의 농가 시설하우스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친환경 방울토마토 수확에 나섰다.

친환경농법을 20년 이상 실천한 송씨는 지금까지 30여 종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오다 소득과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토마토를 최종 선택했다.

올해는 새로운 완숙도마토 품종인 ‘플럼토마토(Plum Tomato)’도 생산할 계획이다. 플럼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쉽게 무르지 않아 신선 샐러드나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인기 품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토마토의 특성에 맞는 관리로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고품질 토마토의 연중 생산에도 나선다. 연중 재배는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안정적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차별화와 지속적인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품목개발 및 생산 시설 기반 확대 등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